

# 2020학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 강남대성 자연 김형락 서면 인터뷰

###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강남대성학원 자연 8반 김형락입니다.

### 2. 작년 고려대 의대를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수를 선택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반수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쉬다가 다시 공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 때 쌓았던 지식을 다시 까먹게 될까 봐 두려웠고, 주위에서도 반수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최대한 영혼을 갈아 넣자고 마음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학을 붙어도 반수를 택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많은 재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 3. 대성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성학원은 입시 실적이 재수학원 중에는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서 믿음이 갔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만 들어와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 등 엄청난 콘텐츠를 다수 풀 수 있다는 사실이 대성학원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4. 강남대성학원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미 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성학원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제가 가진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었고, 주변 환경을 공부하기에 최적한 환경으로 관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5. 재도전의 1년 간을 함께 했던 대성학원의 장점은 무엇이었나요?(선생님/관리시스템/학습분위기 등)

학교 같은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학생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수업시간이나 질문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담임선생님들도 형식적인 존재가 아닌, 정말 학교에 계신 담임선생님과 비슷하게 상담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를 소중히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일과표가 학교와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따로 적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담임선생님 혹은 과목 선생님, 생활지도 선생님)

윤권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담임선생님이셔서 기억이 남은 것도 있지만, 국어 선생님이로서 윤권철 선생님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수업 OT의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비문학을 대하는 기본자세를 설명해 주셨는데, 도입부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 등, 정말 당연하게 지켜야 하지만, 수험생들 대다수가 지키지 않는 원칙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과 예시를 중요시하시는 문법 수업은 현역 때 상대적으로 못했던 문법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바꾸게 해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 7. 담임 선생님의 지도 또는 상담은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5월쯤에 슬럼프가 온 적 있습니다. 3, 4월에 각각 3등, 2등을 한 것에 한참 뒤떨어지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울해 있었을 때, 담임선생님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아직 반도 안 왔다고 위로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 6월부터는 다시 성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 받을 수 있었습니다.

### 8. 대성학원의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점이 좋았나요?

대성 학습 콘텐츠가 훌륭하다는 것은 현역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어본 결과, 교육과정 상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묻는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되어 문제가 정제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이후로 문제를 신뢰하고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강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 문제로 부족한 모의고사 경험을 보완해 주었고, 해시태그 쉬어나 수능 플러스와 같은 문제집은 유형별로 풀 수 있도록 문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 9. 더프리미엄모의고사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많은 수험생이 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 시험이라서 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한국사를 포함한 전 과목을 치러서 수능과 같은 분위기에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 자체도 깔끔하여 시험을 치르는 동안이나, 시험 후 복습을 할 때 여러모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지만, 시험 도중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촉박한 것 등, 시험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이 수능 때 닥쳤을 때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 시험이었습니다.

### 10. 강대모의고사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래주머니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대 모의고사를 푸는 도중에 느낀 압박감 덕분에 수능 때에 당황할 때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상적인 문제 덕분에 모의고사를 친 후 복습을 할 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 11. 해시태그 쉬어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와 강대 모의고사를 푼 후에 복습하기에 좋았습니다. 모의고사에 출제된 어려운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모았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가 있어서 현역 때 풀었던 문제를 복습할 수 있었고, 과거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 12. 고난도 콘텐츠(강대모의고사K, 하이포텐, 해시태그K)은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 기회를 얻게 되어서 까다로운 문제를 대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포텐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발상적인 문제가 많아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K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학의 특성상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13. 선생님별 부교재는 어땠나요?

선생님들 부교재 하나하나가 도움되기도 했지만, 다양한 선생님들의 교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습득하게 되어 하나의 문제라도 푸는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5분의 선생님들이 각양각색의 풀이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도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14. 정교재(수능플러스)는 어땠나요?

수능 플러스는 기출 문제와 자체제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고3 때 푼 문제를 복습함으로써 재수 이전에 갖추었던 실력을 다질 수 있었고, 유형별로 묶인 자체제작 문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비슷한 유형을 새롭게 물어보는 문제들 덕분에 문제 적응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 15.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나만의 과목별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 1) 국어

국어 같은 경우 과목별로 공부법이 다른데, 화작 같은 경우 출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이 발표일 경우, 발화자의 태도,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청자의 반응을 위주로 지문을 읽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문학은 지문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문법은 개념을 최대한 탄탄하게 해 놓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예외 현상이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눈에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 깔끔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비교적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문 속의 내용을 단순히 정보의 나열로 파악하면 안 되고 일정한 연결고리를 잡고 하나의 글로 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한 지문을 풀 때마다 복습하여 도입부 분석을 시작으로 문장, 문단 별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시대명사, 문장 부사 등, 문장 문단 간의 연결고리를 비교적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평가원, 또는 수능에 출제된 선지를 최대한 많이 접하고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EBS 지문 같은 경우, 시는 최대한 전문을 읽고, 익숙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소설은 줄거리, 인물 정도만 알아 두고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것 위주로 읽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에 나온 유씨삼대록 같은 경우, 가정 소설 위주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과 처첩 간의 갈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서 지문을 읽는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2) 수학

수학은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지 문제도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히 풀 수 있으므로 학기 초에는 개념을 다잡는 시기로 삼았습니다. 이때 까다로운 증명이라도 교과서에 있다면 넘어가지 않고 몇 번 적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 3~4 주 주기로 1번씩 가물가물한 것들을 교과서를 보면서 적으면 개념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문제를 푸는 것에 필요한 행동 요령들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도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분 가능성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푼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중에 비슷한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힘이 되어 줍니다.

#### 3) 영어

영어는 어릴 때 외국에 살아서 따로 많이 공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EBS 지문이나 기출 문제를 8문제씩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단어가 비교적 약했기 때문에, 대성에서 학기 초에 나누어 주었던 단어장을 매주 200단어 정도씩 보았습니다.

#### 4) 탐구

탐구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상에 있는 개념들의 흐름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순서로 개념들을 교과서에 배치해서 학생들을 배우게 할까”를 고민해 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념을 익히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유형별로 문제를 익히고 풀이를 일반화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풀이법을 개발하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의 방법을 통해 풀이를 찾고 그것을 체화해야 합니다. 과탐은 비교적 유형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화학1과 생명과학 2를 선택했는데, 화학 1 같은 경우, 계산량이 많아 그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풀거나, 유형별로 관련된 공식을 많이 체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생명과학 2 같은 경우 세부적인 지식을 외워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외우는 능력이 부족했던 저는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 뼈대에 세부적인 지식을 붙이는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 16. 가장 자신 없었던 취약 과목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나요?

저에게 국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비문학, 문학 등 유형별로 하루하루 나눠서 풀었습니다. 9월 평가원 이후에는 평소 하던 대로 공부하던 것에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1~2번 풀어서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또한,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는 수능 직전까지도 복습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위주로 복습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제시된 선지와 보기를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엔 현역 때 실력이 부족했는데, 음운, 단어, 문장 등 큰 틀을 항상 엄두에 두면서 점점 세세한 개념까지 학습하는 형식으로 개념을 학습했고, 이후 문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예외와 예시를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 17. 6평 이전과 6평 이후, 9평 이후와 수능 당일까지 시기별로 어떻게 학습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중시했기 때문에, 6평 이전에는 과목별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일반화시키는 시기로 삼아서 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6평과 9평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항상 엄두에 두고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약간 헤맸다면, 항상 그와 관련된 이론을 찾아보거나, 6평 이전에 만든 풀이법을 수정시키는 등,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다듬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9평 이후에는 시간 관리나 시험 행동 요령 등, 실전 감각을 과목별로 일주일에 1~2회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을 통해서 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9평 이전에 했던 그대로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 18.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확보했나요?

자습시간 같은 경우 강남대성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5~6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습시간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례 시작 시각인 7시 50분보다 50분 정도 일찍 와서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했다고 느낀 국어 문제를 풀거나, 전날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문제를 풀면 두뇌를 회전시키게 되어 후에 있는 1교시 수업이 비교적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19. 질문 시간을 어떻게 확보했나요?

강남대성학원에서 질문시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자습시간에 교무실에 찾아가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좀 길다 싶으면 수업시간 끝나고 따로 약속을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 20. 급식은 어땠나요?

급식 만족도는 최상이었습니다. 일단 급식실 시설이 되게 청결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자리도 부족하지 않게 있었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좌석도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엔 다양한 메뉴가 나오고, 평소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음식이 특식으로 제공되어서 좋았습니다. 심지어 음식 메뉴가 끼니마다 3개씩 나와서 싫어하는 메뉴가 나와도 다른 것을 먹을 수 있게 음식이 제공되어서 좋았습니다.

### 21. 수업시간에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였나요?

강남대성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실력이 출중하셔서 수업시간에 무엇을 놓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최대한 졸지 않고 선생님들의 수업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은 8시부터 3~4시인데, 수능 때 한창 시험을 치는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도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22.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만점을 받으셨는데요. 만점 이후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셨나요?

현역 때에도 9평 때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성적에 안도하게 되어 수능 때 9평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수 때도 9평 만점을 받고 난 후, 만점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낀 다음으로 떠오른 것이 수능 성적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작년처럼 안일하게 공부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과 재수 초기에 다잡았던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9평 이후에 공부하였고, 그 결과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3. 본인이 생각하는 취약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학습, 생활, 멘탈 등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무엇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비슷한 문제를 매일 푸는 것도 고단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다시 되새겨보았습니다. 이렇게 초심을 다잡고 다시 공부에 임했을 때, 조금이나마 저에게 힘이 되었고,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24. 재수생활 동안 성공적인 재수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재수 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했던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감을 유지하는 것인데, 매일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성적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 재수생활 동안 가장 즐거웠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며,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재수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9월 평가원 만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동안 쏟아 부었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매우 뿌듯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8월 방학이 시작되기 1~2주 전 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생각이 아주 많던 시기였습니다. 저 자신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방학 기간 중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친구들과 3~4일 동안 워터파크도 가고 축구도 했습니다. 이것이 남은 3개월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6. 새로운 도전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만점 소감 부탁 드립니다.**

만점을 받았다니 사실 좀 떨떠름합니다. 수능 문제를 풀 당시에는 만점 받자는 생각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씩 차근차근 맞히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는데, 다행히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풀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에서 저를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친지분들, 힘들 때마다 저와 함께 있어 준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대성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7. 수능 재도전 하려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한 마디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9개월 동안 버티고, 선생님들을 믿으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올 텐데, 그때마다 초심을 다잡고 공부에 다시 임하시길 바랍니다. 힘 냅시다!